

교회소식

1.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주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3. 공동 성경 읽기 3주 차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신앙인의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범위: 구약 사무엘하 12장-열왕기상 8장, 매일 3장).
4. 40분간 진행되는 남성을 위한 주일 상설 성경 통독 반 오늘 부터 시작합니다(1시 30분, 구 아동부실).
5. 공동체 인도자 성경 공부가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1시 30분, 느헤미야 실).
6. 각 성경 공부반이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신청한 성도들은 느헤미야 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3시).
7.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미래와 취직, 학업 문제로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로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8. 공동체 예배를 통해 성도를 서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소망합니다.
9. 뉴질랜드 장로교단 복노회 위원들과 만남(19일)이 있습니다. 교회 사용을 위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 A R C H

교회사역일지

3월 7일(주일)
사순절 3
3월 14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3월 24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3월 28일(주일)
종려 주일 (성찬식)

기도순서

3월 21일 (주일)
박병민 장로
3월 24일 (수)
김창조 집사
3월 28일 (주일)
손조훈 집사
3월 31일 (수)
김현주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이선주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11호 2021.03.14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 양	Praise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름	Call to Worship	로마서 12:1	인도자
✧ 찬 송	Hymn	64장	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Prayer of Repentance		다함께
✧ 신 앙 고 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Hymn	261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Prayer		박제용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창세기 19:15-22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Choir	십자가 앞에서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Sermon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304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Offering		인도자
교 회 소 식	Announcements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Closing Scripture		다함께
✧ 응 답 송	Closing Hymn	171장 (1절)	다함께
✧ 축 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오克兰드에서 중동권 선교를 하는 J 선교사 소식입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지난주에 D 형제(회심자)의 난민 심사 준비로 변호사들과 Zoom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 이민성 난민 심사에 증인으로 설 예정입니다. 주일에는 D 형제와 함께 예배 후에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분히 낙담하고 불평할 수 있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D 형제를 통해서 많은 격려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 6년간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달은 많은 심방을 받는(?)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두 방문을 소개합니다.

K 형제 가정: K 형제는 10년 전 FFF 사역의 첫 번째 세례를 받은 형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국(중동)에 어린 딸을 남겨 두고 이곳에서 난민을 신청해야 해서 함께 수년간 딸이 뉴질랜드에 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딸이 뉴질랜드로 올 수 있었고 이번에 저희에게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뉴질랜드에 잘 적응하며 가족이 정착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들으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N 가족: 저희가 FFF 사역을 마치기 바로 전에 세례를 베푼 가정이었습니다. 부모와 아들이 모두 구주를 영접하였고 부모님은 난민 신청을 한 가정인데요. 2020년에 Covid로 인해서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난민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FFF를 통해서 계속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가정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불신자인 큰아들의 마음이 많이 열리는(진지하게 기도를 받는 모습 등) 것을 보며 주님의 때에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또한 FFF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Drew 선교사님과 Leader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FFF 리더십 팀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D 형제의 난민 심사(3월 16일)와 저(Paul)의 증인 인터뷰를 위해서.
2. 수단을 방문 중인 Peter 선교사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잘 회복 되도록.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Prayer	김자경 권사
성	경	Scripture	디모데전서 3:1-7
설	교	Sermon	장로의 자격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330장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3월 7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창세기 19:1-14

죄악이 극에 달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사는 동안 그래도 일말의 신앙의 양심으로 고뇌하고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몰락의 길로 가던 롯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 길을 가서는 안됩니다(1): 장막 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과 달리 성문에 앉은 롯이 더 성공해 보이지만 실상은 재판관 하기 위해 성문에 앉은 것이 아니라(9) 자신의 삶이 허무하여 타락한 성 안에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성문에 앉아 있던 중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돔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된 것처럼(벧후 2:7-8) 롯에게 아직 경건의 모습은 남아있었으나 눈에 보이는 소돔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롯에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도 세상을 살아 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딤후 3:5). 경건의 능력은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성경 말씀이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기에(딤후 3:16-17) 세상이 악하다고 속세를 떠나 살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2)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1):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소돔에 가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물질이 가까워 인색한 대접을 하며(2-3)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지체하며 머뭇거렸습니다(16). 롯은 동성애에 빠져 부끄러운 정육대로 살게 내버려진(롬 1:26) 소돔 사람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기보다는(롬 4:21) 자기 딸들을 함부로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려 했습니다(8).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이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12)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은혜받을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고후 6:2) 기억하며 구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3)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14): 롯의 사위들은 한밤중에 찾아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벧전 3:15)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가 전하는 심판과 구원이 정말 있는 것 사느냐?”고 묻습니다. 축과 담즙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기(애 3:21-22)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말씀 즉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십자가 소망으로 살아내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2. 기도와 섬김, 말씀 묵상과 절제로 이웃을 돌아보며 사순절의 의미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도록.